



대신 해모로 센트럴 단지 전경

명품 브랜드 아파트의 기준 한진중공업 '해모로'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병모)이 토목건축에 편중된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주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뒤지지 않는 정비사업 실적을 앞세워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수주에 뛰어들었고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정비사업 일감을 확보했다.

분양도 순조롭다. 한진중공업이 최근 분양했던 서울, 남양주, 제주 등 모든 사업지가 1순위로 마감했으며 이와 함께 해모로 브랜드 위상

도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월 부산 서대신동에 '대신 해모로 센트럴'을 분양했다. 전체 733가구 중 459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지하 4층, 지상 29층의 8개 동으로 건설했다. '대신 해모로 센트럴'은 2022년 6월 준공하고 2022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초역세권 입지에 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을 갖춘 우수한 교통환경과 편리한 생활권이 장점이다. 또 모든 가구에 초



미세 먼지를 차단하는 4중 필터 시스템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대신 해모로 센트럴'은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 견본주택 개장 첫 주말 사흘간 2만여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대신 해모로 센트럴'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

며 최고 경쟁률 59대 1, 평균 경쟁률 17.1대 1로 분양을 마감했다.

한진중공업은 주택 브랜드인 '해모로'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예정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수요자 분석을 통해 탁월한 입지, 편의성, 웰빙 등을 두루 갖춘 명품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우수한 사업지만 선별해 공급하는 한진중공업의 주택사업 철학과 기준을 보여준다.

2020년은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재개발 분양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주택사업 부문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주택사업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정비사업에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50년 역사를 지닌 국가 인프라 전문기업 위상을 주택사업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❶



대신 해모로 센트럴 아파트 입구